

企劃論文

식민지 풍속에 대한 식민지 통치자의 기록:  
- 佐倉孫三의 『臺風雜記』에 대한 연구 -

林美容\*

I. 서론	IV. 植民地 統治者의 文獻에 대한 해석
II. 저자 佐倉孫三와 여러 집필자	V. 비교민속학적 의미
III. 『臺風雜記』의 구성	VI. 결론

I. 서론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臺風雜記』는 1903년 東京 國光社에서 출판된 책으로 저자는 佐倉孫三(Sakura magozo)이다.<sup>1)</sup> 이 책의 맨 앞부분에는 당시 저자의 상관인 後藤新平가 쓴 序文과 저자의 漢文 교사 三島毅(三島中洲)가 쓴 題詩가 있고, 맨 뒤에는 친구 橋本武이 쓴 跋文이 있다. 이 책은 모두 110쪽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110개의 작은 글로 조목이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조목인 「生蕃」 뒤에는 따로 네 조목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총 114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生蕃’은 臺灣의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高砂族<sup>2)</sup>을 가리킨

\* 中華民國 中央研究院 民族學研究所 研究員 인류학 전공

1) 1997년 8월, 나의 친구인 祖運輝 교수가 일본 京都에서 나에게 『臺風雜記』 영인본을 보내주었다. 나는 1992년 東京에서 일년간 머물러 있을 당시 이 책을 본 기억이 있다. 그때 나는 이 책을 한 부 영인해 놓았던 것으로 생각되나 그 이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을 받고 보니 무척 기뻐했다. 이토록 이 책은 줄곧 나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감정은 臺灣 民俗學을 專攻하는 나의 관심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흘러간 시대에 대한 일종의 회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 즉 『臺風雜記』의 대부분 글은 臺灣人이라 할 수 있는 漢人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매 조목 뒤에는 모두 「評曰」이 붙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뒤에 또 「又曰」이 붙어있다. 이런 것들은 저자의 친구 橋本矯堂(橋本武), 細田劔堂, 山田濟齋와 『臺灣新報』의 臺灣人 記者<sup>3)</sup>가 쓴 것인데, 대체로 저자의 본문에 대한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누가 어느 조목의 「評曰」을 썼는지는 알 수는 없다. 처음에는 이 「評曰」들이 모두 저자가 쓴 것인 줄로 알았지만, 맨 마지막 두 줄의 評語를 보고서야 위에 제시한 여러 사람들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評語를 쓴 네 사람은 모두 臺灣에 있는 저자의 친구였을 것이다.

橋本武의 경우, 발문에서 “역시 이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교육사업에 종사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臺灣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던 일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山田濟齋의 경우, 佐倉孫三과 同門 師兄弟의 관계이며 이들 모두 三島毅의 문하에서 학업을 배웠다. 이런 관계로 볼 때, 『臺風雜記』는 비록 佐倉孫三 개인의 저서라 할지라도 이외 後藤新平, 三島毅, 橋本矯堂, 細田劔堂, 山田濟齋 등 공동 집필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주로 일본인이었다. 이 점을 부각시키고자 저자는 평론자 중의 한 사람인 臺灣人 人士의 인명을 숨겨두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지하듯이 臺灣은 여러 차례의 외부인 통치를 받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원나라의 경우, 1360년 직접 순검사(巡檢司)라는 행정기관을 臺灣에 설치하기도 했지만, 반드시 전면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명나라 때에는 중국 대륙의 주민들이 대거 臺灣으로 이주를 했다. 그런데 1590년 포르투갈인이 이곳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모사(Fomosa)라는 이름을 臺灣 섬에 붙였고, 그 후 네덜란드는 臺灣 남부를 장악하여 1624년에는 安(지금의 臺南市)에 城을 구축하였다. 스페인 역시 1626년 基隆 지방의 社寮島에 성곽을 짓고 다시 3년 후에는 淡水港을 장악하여 臺灣 장악을 노렸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1642년 스

2) 高砂族은 臺灣의 중앙을 관통하는 中央山脈의 산지와 주변의 평지에 사는 원주민으로 크게 Ami, Tayal, Paiwan, Bounoun, Puyuma, Tsarisien, Tsou, Saisiat, Tautau tau 등의 9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진다. 1981년 통계에 의하면 그 인구는 대략 50여만 명에 이른다.

3) 구체적인 인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패인 세력을 몰아내고 臺灣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1661년 명나라의 鄭成功이 명 왕실에 반대하여 부하를 이끌고 臺南에 상륙하여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냈다. 하지만 1683년 6월 淸나라의 군대는 본격적으로 臺灣을 점령하고 鄭成功의 군대를 항복시키기 위해 臺灣에 들어왔고, 결국 완전한 점령을 이루었다. 결국 淸나라는 1684년 臺灣을 福建省에 예속시키고 臺灣에는 臺灣府를 설치하였다.

그 후 대륙으로부터 이민이 격증하였고, 원래의 원주민인 高砂族과 접촉을 하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신천지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淸日戰爭에서 패한 淸나라는 일본과 전쟁 보상 문제를 논의한 1895년의 下關係約에서 臺灣을 일본에 할양하기로 결정을 했다. 결국 臺灣은 1895년 일본 최초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점은 오늘날 臺灣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내부 식민지 논의와 관련이 있다. 일본 식민지 이전의 淸나라 통치 역시 일종의 식민지 상황이었으며 일본과 1949년 이후의 국민당 정부의 통치는 분명히 근대적인 식민지 통치였다. 나는 이 점이 유사한 식민지 경험을 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臺灣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臺風雜記』는 일본의 臺灣 통치 초창기의 기록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일본인 식민지 관리들의 臺灣 통치에 대한 초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식민지주의 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믿는다.

사실 『臺風雜記』는 1903년에 출판된 후, 1904년 福州 美華書局에서 재출판되었으며,<sup>4)</sup> 그 후에는 세 가지 판본으로 臺灣에서 다시 출판되었다. 1961년 臺灣銀行研究室에서 새로 표점을 달고 거기에 「弁言」·繪圖三禎과 目錄을 붙여 臺灣文獻叢刊 第107種으로 출판하였다. 대략 1987년, 大通書局에서는 『臺風雜記』와 『臺遊日記』, 『臺灣遊記』, 『臺灣旅行記』 4권을 한 권으로 모아 臺灣文獻史料叢刊 第九輯으로 출판하였다. 1996년 臺灣省文獻會에서는 臺銀版에 근거하여 臺灣歷史文獻叢刊으로 重刊하였다. 이런 점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臺灣學界에서 이 책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적지 않았을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나는 본고를 통해서 『臺風雜記』가 지닌 日本植民主義의 측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려한다.

4) 일본인 西村一之가 제공한 자료.

## II. 저자 佐倉孫三와 여러 집필자

저자인 佐倉孫三은 號가 達山이고 福島縣 二本松 사람이다. 그는 1861년에 출생하여 1941년(昭和 16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大審院檢事 佐倉強哉의 동생으로서 1868년에 二松學舎에 입학하여 학업을 배웠으며, 靜岡警察署長·山梨縣南都留郡長을 역임하였다. 일찍 중국 福建에 가서 中學堂 및 福建省警察學堂의 敎官으로 8년간 있었다.<sup>5)</sup> 일본에 귀국한 후, 그는 早稻田大學의 講師 및 二松學舎의 塾頭로 있으면서 많은 학생을 배양하였다. 그리고 明治 및 大正 연간에는 중국문제평론가로 활약하였다. 佐倉孫三은 書道와 劍道에도 능했다.<sup>6)</sup>

明治 28년(1895) 5월, 佐倉孫三은 34세의 나이에 臺灣에 왔다. 橋本武는 跋文에서 佐倉孫三가 “여러 사람들보다 먼저 臺灣에 갔다”고 하였다. 佐倉孫三은 만년에 다음과 같이 自述하고 있다. 본래 東京府에서 임직하였으나, 일본이 臺灣을 할양 받은 후 樺山 海軍大將이 戰勝의 영광을 안고 總督으로 임명되고, 水野 衆議院書記官長이 民政局長官으로 임명되면서, 水野 문하의 두 학생이 자신에게 臺灣으로 함께 갈 것을 권고하기에 사직하였다고 적었다. 橋本武는 行裝을 준비한 후 명령에 따라 洗衣匠, 髮匠, 裁縫師, 木工, 掘井者 등 180여 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신체검사가 끝난 후 南京에서 출발하여 廣東으로 배를 타고 갔다. 그리고 선배 武士들과 滿洲에서 回航한 支那通譯連에 가입하였다. 佐倉孫三은 문무백관과 더불어 樺山 總督과 함께 橫濱丸을 타고 5월 24일 宇品港을 떠났다. 그리고 27일에는 琉球城灣에 이르러 進衛師團과 합류하였다. 28일에는 淡水港 밖에 이르렀으나 상륙이 위험하다는 소문 때문에 줄곧 三貂角과 澳底灣 사이에서 맴돌았다. 그러다가 6월 1일에 이르러서야 淸國의 대표 李經芳이 상륙을 허락했다. 이처럼 佐倉孫三은 최초로 臺灣에 부임한 일본관원 중의 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적지 않았다. 맨 마지막 조목 「生蕃」의 「評曰」 중에는 “비록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서도 仕途에 힘썼지만 筆을 놓은 적은 없었다”고 말하

5) 그러나 「三十七年前の夢」이란 문장에서 그는 臺灣에서 3년을 보낸 후 福建에 건너가 6년간 임직하였다고 自述하였는데, 이는 『二本松市史第九卷』에서 말하는 8년과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자료는 모두 일본인 친구 西村一之가 제공한 것이다.

6) 『二本松市史第九卷』, 65쪽.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의 臺灣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 있다. 그가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臺灣에 와서 관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佐倉孫三은 學務部員으로 있다가 후에 警保課 高等警務課長으로 전임하였고 明治 31년(1898)에는 鳳山縣 打狗警視로 승진하였으며,<sup>7)</sup> 臺南 辦務署長을 맡아보기도 하였다. 臺灣에서의 警務 작업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어떤 때에는 新附之民을 告諭하는 告諭文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토비소굴에 들어가 정찰하기도 하였는데, 民害를 제거하기 위해 늘 위험 지역에 몸을 맡겼다고 하였다.<sup>8)</sup>

『臺風雜記』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佐倉孫三의 족적은 臺北(景美·大稻埕)·宜蘭(羅東)·澎湖·安平·高雄 등지에 두루 미쳤던 것이다. 그는 總督府 民政局的 官員으로 있을 때 여가를 타서 이 책을 완성하였는데, 그 목적은 施政의 參考로 삼고자한 데 있었다. 이 책의 「生蕃」 조목에서 그는 “臺灣에서 단지 3년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조강지처의 상을 당하고”, “거기를 떠난 지 이미 6년이 지났구나”고 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그가 臺灣에서 임직한 시간은 3년에 불과하고 그 때 아내의 상을 당했던 것이다.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그가 羅東에서 民家 및 生蕃을 巡視한지 6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그 사이 집필한 記事는 오로지 이 篇뿐이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각 편의 초고는 모두 臺灣에서 임직할 때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직 「生蕃」만이 6년 후에 쓴 것이었다. 그때 그는 일본에서 이 책의 출판과 발행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福建에서 임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佐倉孫三은 漢文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그의 한문 스승은 三島中洲였다. 그의 한문 학습과정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의 지식인들 중 대부분이 한문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佐倉孫三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났는데 이 『臺風雜記』가 그의 한문 조예를 잘 대표하고 있다. 그는 漢文典故를 잘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蓄財」에서는 臺灣 사람이 “시간을 아끼는 습속이 陶侃의 말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서적에 대해서도 정통하였는데, 「蓄財」에서는 “禮는 사치하기보다 검소한 편이 낫다”는 『論語』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맨 마지막의 「生蕃」편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모두 저자가 1895년부터 1898년까지 臺灣에 있는 사이에 쓴 것이다. 일부 原作은 明治 29년(1896) 12월 5일에

7) 『臺灣新報』 제414호(明治 31년 1월 30일).

8) 佐倉孫三, 1932, 「三十七年前の夢」, 日本合同通信社編 『臺灣大觀』 159 쪽, 1958년 臺北成文出版社復刻.

‘稱史’라는 필명으로 『臺灣新報』 제78호에 발표한 적이 있다. 주로 纏足·鴉煙·不潔·愛爪·娶妻·喪典·婦女修飾에 관한 내용인데, 이들은 그가 최초로 쓴 작품이며 初刊時에는 「評曰」이 붙어있지 않았다. 초고의 내용은 훗날 출판된 『臺風雜記』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葬典」을 예로 들면, 初刊時의 맨 마지막 구절은 “전부 眞情이 아닌 虛禮인데 聖訓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로 되어있지만, 1903년 國光版의 내용은 “모두 虛禮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말 우습다”로 되어있어 많이 간결해졌다.

『臺風雜記』 이외에 佐倉孫三의 저서로는 『日本尙武論』과 『武士かたぎ(武士氣質)』가 있다. 그는 또 『日岡鐵舟傳』을 편집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은 1937년 達山會에서 『達山文稿』의 書名으로 출판되었다. 1932년에 출판한 『臺灣大觀』 중에는 그가 쓴 「三十七年前の夢」이 있다. 이 문장에서 그는 1895년 臺灣總督府 民政局長官 水野의 門下 吹野 등의 적극적인 권유로 臺灣에 부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臺灣에 갈 人員募集을 협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總督 樺山과 橫濱丸을 같이 타고 臺灣에 갔다고 했다.

저자를 위해 서문을 쓴 後藤新平은, 1895년에 臺灣總督府 衛生顧問으로 초빙되었고 1898년 3월에는 總督府 民政長官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臺灣에서 무려 8년 8개월간 생활하면서 臺灣 현대화 건설의 추진자 역할을 하였다. 그는 序文에서 “듣건대 君은 일찍 이 땅에서 봉직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後藤이 서문을 쓸 당시 佐倉孫三가 臺灣에 있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아마 佐倉孫三은 後藤의 수하로 있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序文에서 이런 어투를 썼을 것이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三島中洲의 시 8수가 七言絶句의 형식으로 담겼다. 그가 1895년 8월에 쓴 것인데, 이 시들은 주로 당시 臺灣에서 보고들은 것에 대한 감회를 읊은 것이었다. 그중의 한수는 다음과 같다. “전쟁으로 사처에서 피 비린내가 풍기고, 頑民이 抗敵함에 집집마다 빗장을 치누나 天然의 촌락과 우아한 성곽은 푸르른 대숲으로 겹겹이 에워싸였네.” 이 시는 본서의 評者에 의해 「竹籬」편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三島毅는 1830년에 태어나 1915년에 죽었으며 日本 備中國窪屋村中島村 출신이다. 漢文 학자인 그는 重野成齋, 川田甕江과 더불어 明治三大文宗으로 불렸다. 明治 10년(1877), 그는 관직을 그만두고 東京에 二松學塾를 개설하였다. 이 학사

는 慶應義塾·同人社와 더불어 三大書塾으로 불렸다. 그 후 東京高等師範學校와 東京帝大 古典科에서 敎職을 맡았으며 많은 저서와 제자를 남겼다. 본서에 발문까지 써준 것으로 보아 中橋本武는 이 네 사람 중에서도 저자의 가장 친한 친구였을 것이다. 그는 臺灣에 있을 때 그곳의 風土人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록하여 잇음에 대비하고자 한 지는 오래 되었다. 그러나 筆이 뜻을 따라 주지 않고 게다가 보이는 것은 많으나 마음이 움직여 주지 않으니 미처 이루지 못했다.” 아마 문인들 중 거의 대부분이 奇風異俗을 기록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관건은 筆의 속도에 달렸던 것이다.

다른 한 評者는 山田準인데 자가 土表이고 호가 濟齋이다. 일본 岡山縣 사람으로서 1868년에 태어나 1952년에 죽었다. 한문학자인 그도 三島毅의 門下生인 관계로 저자 佐倉孫三와 동문에 속한다. 山田은 일찍 王學會를 창설하고 『傳習錄』을 가르친 일본 陽明학자<sup>9)</sup>이다. 본서의 「土匪」 편 「評曰」에 王陽明의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의 내용은 山田濟齋가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III. 『臺風雜記』의 구성

『臺風雜記』는 일본식민지 통치 시기 臺灣風俗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50년의 일본 통치기간(1895~1945)에 臺灣風俗에 관한 기록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도 단일 저자에 의해 완성된 저서는 6종에 불과하다. 즉 1903년 佐倉孫三의 『臺風雜記』, 1921년 片岡巖의 『臺灣風俗誌』, 1929년 西岡英夫의 『臺灣の風俗』<sup>10)</sup> 1930년 山根勇藏의 『臺灣民族性百談』, 1934년 鈴木清一郎의 『臺灣舊慣冠婚喪祭と年中行事』, 1942년 東方孝義의 『臺灣習俗』이 그것이다. 양적인 면에서 볼 때, 片岡巖의 『臺灣風俗誌』가 가장 방대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佐倉孫三의 『臺風雜記』가 가장 앞서있어 그 의미가 깊다.

일본통치 시기의 이들 풍속기록은 격식 상에서 거의 비슷한데, 대체로 한 조목 한 조목의 풍속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臺風雜記』

9) 竹林貫一編, 『漢學者傳記集成』, 東京 圖書院 1918(1969), 1918 쪽

10) 본서는 『日本風俗史講座』 19號에 收錄되어 있으며, 원래 1928년에 출판되었다.

는 114개 조목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조목마다 評語가 붙어있다. 『臺灣風俗誌』는 천여 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臺灣習俗』은 212개 항목, 358개 조목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臺風雜記』는 부문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뒤의 두 저서는 부문별로 나뉘어져 있다. 『臺灣民俗風物雜記』<sup>11)</sup>는 실제로 56편의 隨筆로 구성되어 있는데 篇을 나누지는 않았다. 그리고 『臺灣舊慣冠婚喪祭と年中行事』는 비록 篇과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 많은 자질구레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하튼 이들 저서는 들은 것이 있으면 꼭 기록하는 일본 사람들의 百科全書式 지식구조를 잘 나타낸다. 『臺灣の風俗』은 편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저서와 달리 자질구레한 소제목이 없다. 이것은 저자가 ‘臺灣人’(漢族)과 ‘生蕃’(高砂族)의 습속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하고자 한데 목적을 두고 상세한 기록은 후일의 과제로 남긴데 원인이 있다.<sup>12)</sup>

2차 세계대전 이전 臺灣風俗記錄을 남긴 이들 6명의 저자 중에서 佐倉孫三는 한문에 능했고 鈴木清一郎은 臺語에 정통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임직하였다. 片岡巖은 법원의 통역관으로 있었고, 東方孝義는 일찍 高等法院 檢査局과 文教局의 囑託으로 있었다.<sup>13)</sup> 그러나 西岡英夫와 山根勇藏의 신분은 확실하지 않다. 비록 佐倉孫三의 『臺風雜記』가 臺灣風俗 관련 최초의 저서라 할지라도 漢文으로 출판된 관계로 그 후 출판된 이 방면의 저서에서는 『臺風雜記』를 참고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鈴木은 그의 序文에서 片岡巖의 『臺灣風俗誌』를 참고했다고 했으나, 『臺風雜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佐倉孫三는 臺灣에 온 일본 문관 중에서 가장 일찍 臺灣社會를 접촉하고 그 풍속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일본문화와 臺灣文化의 제1차 접촉을 대표하는 사람(first encounter)이다. 그는 前言에서 『臺風雜記』는 “우리 본토와 다른 100여 가지 사실을 기록하였다”고 했다. 이외 우리는 두 문화의 접촉 당시 어떻게 自己文化인 日本文化와 他文化인 臺灣文化를 인식했는가 하는 저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

11) 본서는 일본어 원저 『臺灣民族性百談』의 中文翻譯本으로 1989년에 출판되었다.

12) 西岡英夫, 『臺灣の風俗』, 長坂金雄 編, 『日本風俗史講座』, 19號(東京: 雄山閣, 1928), 2쪽.

13) 池田敏雄, 『殖民地臺灣の民俗雜誌』, 『臺灣近現代史研究』 4(1982), 113쪽. 池田敏雄의 저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준 植野弘子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리고 그가 기록한 臺灣의 풍속은 清末의 臺灣 舊俗을 대표하며, 또한 일본식민지 통치 이전의 臺灣 풍속의 본 모습을 대표한다.

현재의 臺灣文化는 이미 일본의 통치로 인한 일본문화와 국민당의 통치로 인한 대륙문화의 이중적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다. 그러나 1895년 이전의 臺灣文化는 중국의 福建과 廣東의 이민들이 臺灣이라는 땅과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海洋島嶼的 색채를 띤 문화이다. 이 문화의 眞面貌(authentic configuration)는 『臺風雜記』를 통해 표출된다. 비록 그것이 일본 지식인의 시야에 비쳐진 臺灣 風俗을 대표할지라도 중국의 문관 및 학자들이 쓴 方志에서 나타나는 臺灣의 風貌와는 많이 다르다.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을 찾는다면, 전자는 비교의 의도에서 출발하여 異文化的 관점에서 서술한 반면, 후자는 중국문화의 변두리 또는 教化가 미치지 못하는 化外라는 시야에서 臺灣을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臺風雜記』의 가장 큰 특색은,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인에 의해 완성된 臺灣風俗記錄 중에서 유일하게 漢文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 佐倉孫三 뿐만 아니라 評者 중에도 한문에 정통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본서 중의 『鹽田』을 예로 들면, 評語에 “나는 일찍 『鹽鐵論』을 읽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처럼 한문으로 된 古典을 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중국인 중에도 많지 않다.

한문은 19세기 많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이었다. 이른바 ‘漢字文化圈’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非漢地區’의 漢文作品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한자를 통해 漢文化를 소화하고 흡수하였으며, 그리고 어떻게 한자로서 그 문화를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인류학적 연구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佐倉孫三의 『臺風雜記』가 바로 한자를 통해 일본 전통문화의 내재적 의미를 표현한 실례이다. 비록 臺灣의 전통문화를 중심에 두고 일본문화를 서술하였다고는 하지만, 인류학적 비교의 시각에서 볼 때 『臺風雜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연구는 뜻 깊은 작업이 아닐 수 없다.

#### IV. 植民地 統治者의 文獻에 대한 해석

『臺風雜記』의 첫 쪽에 나와 있듯이, 본서는 저자가 “臺灣總督府 民政局에 있을

때 여가를 내서” 쓴 것인데, 그 목적은 “施政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 데 있다. 본서는 분명히 植民地 통치를 목적에 둔 것이기 때문에 總督府 民政局長 後藤도 본서가 출판된 그해 2월에 序文까지 써 주었다. 이런 관계로 본서는 분명히 ‘식민지 통치자의 문헌’에 속하는 것이며 저자가 식민지 관리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 역시 식민지 통치에 있었다.

사실 위에서 제시한 일본 통치시기의 많은 臺灣風俗 관련 記錄도 모두 식민지 통치자의 문헌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식민지에 대한 식민지 통치자의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이들 저자들이 自述한 출판 목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鈴木清一郎은 그의 저서에서 “臺灣과 臺灣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정확한 인식은 臺灣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中日親善’과 迷信打破·民俗改善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저자에게 臺灣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주로 통치를 위한 편의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西岡英夫는 臺灣의 풍속을 기록할 때 臺灣의 漢族, 平埔族, 高砂族을 모두 ‘新附之民’으로 보고 이런 시각에서 그 풍속을 기록했다.

施政의 참고로 삼고자 했다는 佐倉孫三의 말에 근거하여 그가 한문으로 臺灣風俗을 저술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19세기말과 20세기 초 臺灣에 온 일본관원 중에 한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臺風雜記』는 참고의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臺灣사람에게도 보이고자 한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듯하다. 한문을 사용한 것은 교류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의 한문 소양을 과시함으로써 臺灣 土人들의 마음을 사교자한 데에도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서의 저술에는 저자 이외에 後藤新平, 中島三洲, 橋本矯堂, 細田劍堂, 山田濟齋 등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일본 사람들의 문학사상을 엿볼 수 있다. 본서에서 저자는 또 일본의 國醫 佐藤進, 橋本綱常, 池田謙齋, 松本順, 靑山, 佐佐木東洋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가장 일찍 서양의학을 배운 사람들로서 일본인에게 긍지를 안겨준 사람들이다. 이외 『陝雲峽兩日記』의 저자이며 유학자인 竹添井井<sup>14)</sup> 등의 학자와 臺灣에 와서 금광업을 벌인 일본의 富商 藤田傳三郎과 大宮(이름은 알 수 없음)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일본의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본서에 소개된 臺灣 사람은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의 한 사람은 臺灣의 철도를 부설한 청나라의 관원 柳銘傳과 打狗(지명)의 부호이며 매판자본가인 陳某이다 陳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영수증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타인을 믿어주는 臺灣 사람의 성품을 잘 대표하는 예이다. 다른 한 사람은 청나라 초기 오리를 기르면서 반란을 일으킨 ‘鴨母王’ 朱一貴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臺灣이 일본 식민지로 전락된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臺灣에 대한 일본 총독부의 구체적인 통치방식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을 하고 있다. 臺灣風俗에 대한 기록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방면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간략하나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가히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學房」에는 “현재 총독부에서는 국어학교를 개설하여 교육의 진보를 크게 도모하고 있다”(28쪽)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부터 臺灣 사람들에게 급히 일본어를 보급하고자 한 일본의 방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不潔」에서는 “邦人이 本島에 들어온 이래, 거리의 청결에 대해 크게 힘을 기울였다. 도랑을 새로 파기도 하고 자갈을 깔기도 하여 거리가 확 트이고 車馬가 편안히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물을 새로 파 놓으니 맑은 물이 용솨음쳐 올라오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위를 식히고 빨래도 할 수 있게 되었다”(28쪽)고 하는데, 초기에 일본 사람들은 거리를 청결하게 하고 도로를 부설하고 우물을 파는 등 근대적 체계를 갖추는 일에 힘을 많이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火車」에서는 劉銘傳이 부설한 철도에 대해 언급할 때 “힘준한 獅嶺에 이르면 움직일 수 없어 사람들이 모두 내려 차를 밀고 산봉우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지금은 터널을 곧게 뚫어놓아 승객이 가득하고 그 분위기 역시 이전과는 대비가 안 된다”(46쪽)고 하면서 臺灣鐵道를 개선한 일본인의 공적을 스스로 칭송하고 있다. 그리고 「醫生」에서는 “本島가 우리의 국토로 편입된 후 총독부에서는 각 지방에 병원을 개설하고 의술을 크게 펼쳐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냈다”(52쪽)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본정부가 병원을 개설하고 서양의료시설을 보급시킨 사실을

14) 이름은 光鴻, 字는 漸卿. 肥後天草上村 사람이다. 생존기간은 1842~1917년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四書를 교육받았다. 5歲 때 熊本에 가서 儒醫였던 值賀槐南에게 左傳·國語를 배웠다. 天津領事·朝鮮公使 등을 역임하고 直接 李鴻章과 交渉한 적도 있었다.

소개하고 있다. 「市場」에서는 “근래에는 우리의 경찰이 市場監督法을 시행하면서 위생과 풍속에 가장 큰 주의를 돌렸기에 질서정연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55 쪽)고 하였다.

佐倉孫三가 종사한 경찰 업무는 인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臺灣에 들어오는 즉시로 시장과 위생에 대해 감독을 해왔는데 본문에서는 청결을 지키는 일본 사람들의 이런 특성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 「大甲筵」에서는 “현재 우리 총독부에서는 이 업종에 대해 크게 獎勵를 하고 있다”고 했으며 「樟腦」에서는 “현재 총독부에서는 樟腦署를 설치하여 이 업종에 대해 크게 힘을 쏟고 있다”고 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산업의 진흥은 총독부의 급선무였다. 「新高山」에서는 “우리 황제폐하께서 新高라는 號까지 하사하였는데 아마 새로 편입된 영역 중에서 高岳에 해당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101 쪽)고 하였는데, 이후로 臺灣의 최고봉인 玉山을 高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臺灣을 얻은 일본 사람들은 다소 의기양양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佐倉孫三와 같은 지식인들은 적어도 겸손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臺灣의 풍부한 물산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못하며 그저 上天이 내려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를 들면 「樟腦」의 「評曰」에서는 “하늘이 우리에게 이런 비옥한 땅을 하사하였으니 이 어찌 조상의 德이 아니겠는가?”(83 쪽)고 하였다. 「橄欖」(사실은 유자임)의 「評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르고 臺灣을 高砂島라 불렀는데 珍寶가 풍부하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닐까?”(84 쪽)고 하였다. 그리고 「芭蕉實」에서는 臺灣의 과초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배를 채울 수 있다면서 “하늘이 내린 良品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으랴!”(78 쪽)고 하였다.

저자의 시야에서 볼 때 臺灣에는 물론 좋지 않은 습속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부녀자의 纏足과 아편을 피우는 일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습속을 『臺風雜記』의 두 번째 조목에 서술하였는데 혹시 “부정적인 것이 첫인상이라”는 저자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일부 저자들은 檢骨 혹은 乩童과 같이 미신으로 보이는 습속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시의 일본은 분명히 문명 개화된 점이 있었다. 저자 역시 의술·여자교육·소방시설과 청결을 지키는 습속 등 면에서 일본이 臺灣보다 우수하다고 서술하면서 臺灣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비하된 臺灣의 풍속을 읽는 마음은 씩씩할 수밖에 없다.

## V. 비교민속학적 의미

『臺風雜記』의 가장 특수한 점은 이 책이 지닌 비교민속학적 의미에 있다. 비록 본서는 臺灣風俗에 대한 기록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저자의 正文 또는 評者의 「評曰」 중에는 일본풍속에 관한 내용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총 114 개의 조목 중에 일본 관련 기록이 없는 부분은 거의 없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타 臺灣民俗 관련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臺灣文化와 日本文化의 만남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臺灣文化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稀奇·欣賞·讚嘆·疑惑·批判 등 여러 가지 정서를 보아 낼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여느 저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臺風雜記』만의 특색이다.

본서에서는 일본의 일반 풍속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방 풍속과 물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宇治의 차, 東京의 정원, 橫濱의 烘茶場, 高野·奈良·京都의 사원, 佐倉孫三의 「山葵(사실은 大蒜)」, 鹿兒島의 芭蕉, 青森·長岡의 거리 등 내용이 있어 읽기에 매우 흥미롭다. 적어도 그 당시 臺灣에서 일본풍속에 대한 소개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臺日風俗이 비교되어 있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리를 뜰 수 없게 만든다.

『臺風雜記』는 대체로 일본과 다른 臺灣의 풍속을 수록하고 있다. 저자의 前言에서도 보이듯이, “우리 본토와 다른 臺灣의 人情·習俗·家庭·物産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런 관계로 일본과 臺灣이 모두 가지고 있는 습속에 대해서는 그 중의 서로 다른 점만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臺灣의 歌妓에 대해 언급할 때, 일본의 藝妓와 같이 피리를 불고 거문고를 타며 몸을 흔드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이라면 이들 歌妓는 손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손으로 콧물을 닦기도 한다고 했다(34쪽).

그리고 臺灣의 烏龍茶에 대해 설명할 때, 宇治·峽山の 차와 비교하면 “색과 맛이 다르나 향기는 비슷하다”(35쪽)고 말했다. 臺灣의 講古師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일본의 ‘講釋師’와 ‘軍談師’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차이점을 밝혔다. 그리고 臺灣인의 돈지갑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일본의 ‘金囊’과 비슷한데 다만 복부 아래에 차고 있어 걸을 때에는 동전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고 했다(95~96쪽). 臺灣 특유의 습속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그와 유사한 일본의 습속을 예로 들었다.

예를 들면 臺灣 부녀자들의 纏足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일본의 ‘涅齒’를 예로 들었고, 臺灣의 ‘火籠’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일본의 ‘花籠’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했다.

저자는 異文化의 관점에서 다시 일본문화를 되돌아보기 때문에 때때로 반성의 사고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臺灣人の 장점을 거론하면서 일본인도 이를 배워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婦女修飾」에서는 臺灣 여인의 修飾面貌가 일본 여인보다 훨씬 나으며 臺灣 여인들은 행복하고 일본 여인들은 불행하며, 臺灣 남자들은 행복하고 일본 남자들은 불행하다고 하였다. 비록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저자는 일본 여성들도 臺灣 여성들처럼 매일 머리를 빗고 분을 바르고 장식품을 달고 다닐 것을 바랐다(31쪽). 「飼鴨」에서는 臺灣 사람들은 닭·오리·거위의 사양에 능하다고 했으며, 「評曰」에서는 “家禽業은 나라와 백성의 이익에 크게 관련되어 있으니 어찌 臺灣 사람들의 눈살에 굴복하지 않으랴!”(68~69쪽)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따라 배울 것을 바랐다. 「農制」에서는 “臺灣의 농업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며” 농지가 일본처럼 헐애하고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밭이 이어져 넓기가 끝이 없다고 했다(88쪽).

본문에서는 일본인의 百科全書式 경향과 경험 중심주의적 민속지식구조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일본인과 서양인의 지식구조 차이라고 나는 느낀다. 생활화된 지식, 경험적인 지식, 자세한 묘사, 섬세한 탐구, 비록 체계화 또는 추상화는 되지 못했을 지라도 실용적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공명을 자아낸다.

## VI. 결론

1903년 일본의 대만총독부 고위관리이며, 한문에 능통한 지식인인 佐倉孫三에 의해서 쓰인 『臺風雜記』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에는 대만 민속에 대한 110개의 글이 실려 있다. 오늘날 시각으로 말한다면, 이 책은 일본의 대만총독부 관리가 쓴 최초의 대만 민속에 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인 佐倉孫三은 1895년 일본의 대만통치가 시작될 때 대만에 온 사람으로 3년 동안 대만에 머물면서 대만총독부의 관리로 일을 했다. 그는 총독부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여러 곳을 여행했고, 그때마다 『臺風雜記』에 실린 글

을 썼다. 그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글로 썼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이국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일본문화와 대만의 것을 비교하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대만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목적을 지닌 대만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에게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臺風雜記』의 내용이 지닌 목적·태도·형식 그리고 행간에 숨겨진 논리 등을 살펴본 결과, 19세기 말이라는 시점에서 일본의 대만 식민지화를 위한 초기 노력이 이 책에 담겨 있음을 발견한다. 두 개의 문화가 서로 만났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만큼 일본의 대만에 대한 식민지 통치는 근대적 체계의 정착과 식민지의 원활한 관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臺灣學界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후기식민지주의(post colonialism)’로 이해된다. 특히 일본의 통치와 그 이후의 국민당 통치는 역사적 함의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식민지 상황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 단계의 피식민지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후기식민지주의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초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 전 단계의 식민통치인 국민당 통치와 그 전전 단계의 식민통치인 일본의 臺灣 통치에 대한 평가는 후기식민지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臺灣 사람들이 직면한 歷史認識의 大工程이다.

이미 식민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마땅히 식민으로 인한 비통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의 통치로 인한 비통함은 이미 먼 과거로 지나갔지만 국민당의 강압적 통치로 인한 비통함은 지금의 많은 臺灣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도 과거로 인정하고 떨쳐버려야 한다. 비록 국민당 정권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권으로 자인해 왔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거 정권의 시각에서 臺灣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지닌 功過와 의의를 따져서는 안 된다. 즉 현재의 시각에서 어떻게 과거 식민지 통치의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의 후기 식민지 시기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新國家의 미래를 펼치는가 하는 점이 바로 歷史認識의 개혁을 책임진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비통함을 떨쳐버리는 방법 이외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는 식민지로 전락했던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점

에 대해 사색하는 것이다. 단지 식민지 통치자에게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혹은 식민지 통치자가 우리에게서 어떤 물건(생명·재산·지혜·존엄)을 빼앗아 갔고 어떤 유용한 물건을 남겼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또는 일부러 좋은 물건을 남겼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남긴 것들 중에서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우리가 식민지 통치의 부정적인 측면만 본다면 보이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것뿐일 것이고,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도 역시 부정적인 것뿐일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다. 이런 경향은 후기 식민지시기에 들어선 우리들로 하여금 ‘被植民’이라는 그림자에 싸여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100년 전 일본 사람이 쓴 이 『臺風雜記』가 오늘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sup>15)</sup> 즉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일본인의 우월의식을 발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의 일본이 우리를 이겼는데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이전에는 이겼는데 지금의 우리 또한 어떠한가? 목적은 단지 비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視野에 있다.<sup>16)</sup>

(번역자 최민호)

15) 나는 『臺風雜記』를 다시 편성하여 白話文으로 번역하였고,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해를 달아 놓았다. 그리고 일본과 臺灣의 풍속이 갖든 옛 사진을 찾아내 서로 비교를 하였으며, 본 내용에 「譯者的話」를 첨부하여 현재 臺灣 풍속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책의 제목은 『白話圖說臺風雜記』이고, 2003년 12월에 출판되었다.

16) 나의 『白話圖說臺風雜記—臺日風俗一百年』에 序文을 써준 선배 민속학자 劉枝萬 박사는, 일찍 臺灣에 대한 일본과 국민정부의 초기 통치에 대해 여러 가지 비교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인재문제: 臺灣에 파견된 초기의 일본인들은 대부분이 엘리트계층에 속해 있었다. 비록 그 대부분이 비주류에 속하는 東北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臺灣은 오히려 그들에게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이 되었다. 본서의 저자 佐倉孫三은 한문에 정통한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臺灣의 풍속을 기술하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그는 정복자의 우월감도 체쳐놓고 일본의 그릇된 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실로 보기 드문 지식인이었다. 더욱이 序文을 쓴 後藤新平은 臺灣을 잘 다스린 일대 공신이다. 훗날 그는 滿鐵의 조사사업까지 기획 집행한 사람으로서 식견이 뛰어난 인물이다. 반면 臺灣에 온 陳儀政府의 인원들은 良莠가 뒤섞여있으며 뇌물을 받아먹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었다. (2) 법치문제: 일본은 大津事件 이후 법치로 나라를 세웠고 일본의 통치를 받은 臺灣 역시 법치의 기석을 닦아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臺灣에 온 국민정부는 오히려 법치를 파괴하고 人治를 시행했다. (3) give and take의 문제: 식민통치 초기 일본은 臺灣에 대한 투자를 선행했다. 이처럼 臺灣에 대한 투자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일부 중앙정부 인사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臺灣에 들어온 국



## 참고문헌

- 山根勇藏, 『臺灣民俗風物雜記』, 臺北 武陵出版社, 1989.
- 日本合同通信社 編, 『臺灣大觀』 臺北: 成文(1985年復刻, 中國方志叢書, 臺灣省, 163號), 1932.
- 片岡巖, 『臺灣風俗誌』, 臺北: 南天出版社(臺北二刷版), 1994(1921).
- 平島郡三郎, 『二本松寺院物語』, 東京: 歷史圖書社, 1995.
- 西岡英夫, 「臺灣의 風俗」, 長坂金雄編, 『日本風俗史講座』19號 1~64 쪽 東京 雄山閣 1928.
- 竹林貫一 編, 『漢學者傳記集成』 東京: 圖書院, 1969(1918).
- 池田敏雄, 『殖民地臺灣의 民俗雜誌』 臺灣近現代史研究4: 109~151 쪽, 1982.
- 佐倉孫三, 『臺風雜記』, 東京: 國光社, 1903.
- 東方孝義, 『臺灣習俗』, 臺北: 古亭書屋, 1974(1942).
- 林美容(編譯), 佐倉孫三(原著), 『白話圖說臺風雜記』, 臺北: 臺灣古籍出版社, 2003.
- 鈴木清一郎(著), 馮作民(譯), 『臺灣舊慣習俗信仰』, 臺北: 衆文圖書公司 1984 再版(1989 增訂版).

- |   |                        |
|---|------------------------|
| ● 투고일 : 2004. 7. 4.   | ● 심사완료일 : 2004. 8. 17. |
| ● 주제어(keyword) : 일본식민지주의(Japanese colonialism), 대만민속학(Taiwan folklore), 식민지통치자의 기록(colonizer's documents) |                        |

---

민정부는 전승국의 자태로 가져갈 수 있으면 모두 가져갔다. 국민정부는 臺灣의 식량을 上海에 대량으로 운송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前後 초기 臺灣의 물가파동이 극심하고 화폐가 폭락한 주된 원인이 되었다. (4) 문명과 야만의 문제: 문명개화의 측면에서 볼 때, 식민통치 초기의 臺灣은 분명히 일본보다 개화가 덜 되었다. 이런 관계로 비록 異族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될 수 있는 한 일본의 우수한 점을 따라 배웠다. 그러나 광복초기, 전란을 겪은 중국의 문명개화 정도는 臺灣보다도 뒤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臺灣이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으니 그 고통과 分岐는 피면할 수 없게 되었다.